

The Effect of Disaster Awareness of Social Service Employees on Disaster Attitude

Min Soo Kim, Soo Young Kim, Byung Hyun Park⁺, Yun Jung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G3road busnadaehak-ro, Guemjeong-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saster awareness and disaster attitude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 employee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setting up the futur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November 22 and December 22, 2016 from the employees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located in Busan.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It is found that disaster attitud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years of working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the frequency of external training particip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isaster attitude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disaster awareness but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frequency of external training participation.

Key words: disaster awareness, disaster attitude, social service employees

1. 서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에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확대 개편하는가 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 관리의 총괄·조정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으며, 긴급 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야 발송되는 등 과거의 대처 및 대응 과정과 비교해 변함이 없는, 국가중심의 재난대비체계

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경험들을 통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힘들다는 것을 학습하였고, 이러한 인식의 차원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Min, 2015).

방재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관리 분야에 앞선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처럼 대규모 재난의 파괴력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준바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Zhang

[#] The 1st author: Yun Jung Choi, Tel. +82-51-510-1559, e-mail, yunjaaa@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Byung Hyun Park, Tel. +82-51-510-1559, e-mail, bhpark@pusan.ac.kr

& Kumaraswamy, 2012). 따라서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부 조직간 협력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Milward, *et. al.*, 2010; Kapucu & Hu, 2014; O'Toole, 1997; Lim, 2016).

Park(2005)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국가행정기관의 구호활동은 주로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령과 통제가 주요한 조직 원리로 작동하는 관료제로 인해 소수자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외부 변화에 신속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논의에 있어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민간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기관과 종사자들을 활용한 민간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구호의 1~3차 안전망의 복지사각지대를 메워주는 4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등 현 복지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Noh, 2011).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대상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주된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새터민, 외국여성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 약자이자 재난약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서비스의 유형이 서비스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겪는 불편함을 지원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난약자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난약자에 해당되는 노인의 경우 대피경고 이후에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며(Friedsam, 1960), 재난상황에서 경고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복구과정에서도 변화된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데 어려워하며(Friedsam, 1960), 복구 속도 역시 젊은 사람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Heurta & Horton, 1978). 片田敏幸, *et. al.*(1999)의 연구에 의하면 독거

노인들은 홍수 등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건강한 노인도 자력으로 피난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고, 노인들의 특성상 피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의 경우에는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Sung & Choi, 2011). 이외에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이 실시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2013'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난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나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Kwon, *et. al.*, 2013; Kim & Noh, 2016 재인용).

이렇듯 재난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다양성을 감안했을 때 그 대책에 있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회복지 인력이 바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일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처행동은 재난취약자들의 재난안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취약자들의 재난안전에 있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 특성을 활용하여 접근한다면 재난 발생 시 사고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를 재난의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재난취약자에 대한 개입이 가장 용이한 핵심 인력으로 보고, 이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태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급증과 재난관련 교육의 부재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포괄하는 폭넓은 사회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는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8개의 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제공되고 있다(Kwon & Lee, 2015).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별로 제공기관 및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Table 1>에서 사업별 이용자 증가율, 제공기관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의 평균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별 증가 추세와 같이 사회서비스제공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회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 사회안전망이 반영하지 못하는 4차 안전망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영역이 담당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역할은 향후 재난발생시 복지서비스정책 수립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5(대국민 안전

교육의 실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재난발생시 일차적인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발전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ark & Kim, 2014).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인력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5).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및 기관장, 제공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는 제공기관, 이용자의 가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등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화재 등 자연 재난 및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Table 1. Growth rate of users and providers by business

Business Name	Service start year	Number of users (persons)			Number of provider organizations (locations)		
		Initial Year	2015	Growth rate	Initial Year	2015	Growth rate
Elderly care comprehensive service	2007.5.	14,045	43,400	3times	478	1,580	3times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7.5.	9,065	64,500	7times	406	888	2times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care	2008.2.	2,958	71,100	24times	164	404	2times
Housekeeping visit management	2008.9.	18,141	10,900	1times	292	435	1times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s	2009.2.	18,005	62,000	3times	636	1,593	3times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2010.8.	196	500	3times	46	185	4times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2007.8.	224,848	254,700	1times	390	3,273	8times
Sum	-	247,958	507,100	2times	2,412	8,358	3times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통계로 2015년 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수는 139,000명으로 나타난다(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인다. 하지만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그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은 필수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인력과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하는 사회서비스기관 대표, 중간관리자, 사회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무자를 총괄하여 살펴보았다.

2. 재난인식과 재난태도의 개념

재난은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재난인식과 재난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 인식과 재난태도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관계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인식과 태도의 관계보다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더욱 중시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Fiske & Taylor, 1991), <Figure 1>과 같이 태도모델 가운데 수정된 단일요소모델은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과의 관계에서 인식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Lutz, 1981; Choi, 2000 재인용).

또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에 관해 Song(1984)과 Lee(1999)의 연구에서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노화사

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재해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²⁾, 정작 재난인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며, 제대로 된 개념정의도 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에서 ‘재난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재난인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인식’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을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판별 하는 일, 지각·기억·상상·구상·판단·추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지적 작용, 지각·기억·내성 이와 같은 이해를 나타내는 명제 및 판단을 포함하여 의욕·정서와 함께 의식의 기본이 되는 측면 또는 기능을 말한다(Lee, 1994). 이에 따라 ‘재난인식’을 “재난에 대한 이해와 재난으로 인해 겪게 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Woo,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재난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 ‘재난발생 가능성 인식 정도’,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 정도’,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재난 간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교과목 개설 필요성 인식정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Kim(2005)의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시 본인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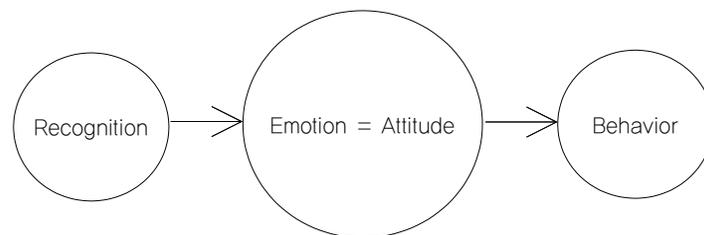


Figure 1. Modified single-element model

2) ‘이 대통령 “재난재해 인식 선진국처럼 개선해야’ ’ JTBC news, 2012.6.7.

내 재난 발생 시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알고 잘 알고 있었음’, ‘소속기관의 재난 발생 시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의 내용으로 측정하였으며, 지역 내 인적 재난 발생 및 재난관리 정도에 대한 인식은 ‘지역 내 재난 발생에 대한 위기감 수준’, ‘지역 내 재난 발생에 대한 심각성’, ‘지자체의 재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지자체의 재난 관리에 대한 노력 정도’로 구성하여 그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인식’을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지역 및 활동분야에서의 재난에 대한 이해와 판단 정도”로 정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재난태도

재난태도는 사람들이 재난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양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태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널리 수용되어지는 정의는 「사회심리학 편람」 초판(Murchison, 1935)에서 G. Allpor가 제시한 정의이다. Allpor는 태도란 태도대상과 상황에 관련한 소지자의 반응에 직접적 또는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생리적인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Han, 2009 재인용).

Kim(2005)에 따르면 근래 사회과학자들은 태도를 가리켜 어떤 대상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학습된 선유경향, 즉 선입견이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함축적인 가정들이 포함되는데 첫째, 태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 또는 미디어와 같은 경로를 통해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태도는 무엇인가에 반응하려는 선유경향이다. 이는 태도가 사람들의 행동보다 앞서가며 사람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태도는 어떤 특정한 일에 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평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싫거나 좋음, 찬성이나 반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도가 어떻게

구성, 형성, 변경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태도에 대한 이해는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행동을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Lee, 2011). 따라서 재난 인식이 재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에 따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ung, et. al.(2008)은 재난발생 시 간호사의 실질적인 준비나 경험에 있어서의 부적절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재난 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상황의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Lee, 2014; Fung, et. al., 2008; Jennings, et. al., 2005; Kuntz, et. al., 2008; Pattillo & O'Day, 2009) 재난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Park(2015)의 연구에서는 재난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나는 재난계획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적절한 재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계획은 병원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여 처리해야 한다’, ‘재난에 대비한 건강관리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계획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계획은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우리 병원에서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재난 관리는 간호사와 의사들만의 일이다’, ‘재난 모의훈련이 병원에서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 ‘병원에서도 재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로 구성하여 재난태도를 측정하였다.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를 일컫는 말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태도’를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에 걸쳐서 가지게 되는 대처 자세”로 정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총 2단계를 통해 살펴

보았다. 1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2단계에서는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한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난과 관련한 행정·방재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진행된 재난 관련 국내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분야는 다르지만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사한 성격의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재난인식과 재난태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Park(2008)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Park(1996)의 연구에서는 관광이벤트 관련 집단의 인식 차이에 따라 관광이벤트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이벤트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과 관련해서는 Lim, *et. al.*(2015)의 연구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재난준비, 재난훈련, 지속의지 등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 *et. al.*(2015)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경험, 재난에 대한 인식정도와 재난준비도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재난 인식도, 재난준비도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소방대원, 간호사 등 재난발생 시 1차적인 대처인력을 대상으로 재난인식, 재난준비, 재난경험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관련한, 더욱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약자와의 접근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연구는 진행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재난상황을 대비(관리)하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재난이라는 상황이 특정한 분야나 대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바,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가 많았으나, 그 중 본 연구의 대상 및 목적이 일정정도 부합하는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Song(2015)의 경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을 통해 안전문화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확인시키고 있는데, 안전의식 부재, 당사자들의 무관심, 부족한 안전관련 홍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재난 상황 시 안전대피 및 관련 용품이 거의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한 상시적인 대비체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었으며,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주 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유용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Hyun(2016)의 경우 서울시내 구청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효과성에 다양한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재난관련 업무담당자의 중요성, 지방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및 공유의 필요성, 그리고 재난에 대한 개인인식 및 태도와 정보품질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대한 효과적인 접근인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him(2016)의 경우 서울지역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일반적 차원의 재난에 대비한 교육참여 및 지침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것에 비해,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추어진 재난에 대한 이해는 63.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련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재난을 경험하는 개별기관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진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재난에 있어 예방에서 대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재난태도의 기초가 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의 재난인식과 재난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의 재난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에서 12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실시한 부산시 사회서비스제공자 보수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직접 설명하였으며 설문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지를 배포 및 실시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총 13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10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설문지에 사용된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기관 특성 10문항, 재난인식 6문항, 재난태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서비스제공자 대상 재난관련 척도는 없는 상황이므로 간호화 논문의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재난인식척도는 Woo, et. al.(2015)의 논문의 6개 문항(재난 손해에 대한 걱정 정도, 재난발생 가능성 인식 정도, 재난 예방 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 정도, 재난에 대한 심각성 정도, 재해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 교과목 개설 필요성 인식정도)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30$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689$ 였다. 다음으로 재난태도는 Park(2015)이 개발한 한국판 도구를 수정·활용하였다. 총 11개 문항(재난계획인지 필요 정도, 재난관리 필요 정도, 재난계획 대상, 잠재적 위험 파악 및 처리 필요 정도, 재난대비훈련 필요 정도, 재난계획구비 필요 정도, 재난계획 갱신 필요 정도, 기관의 재난발생가능성 정도, 재난관리 주체, 재난 모의훈련 필요성 정도, 기관의 재난훈련 필요성 정도)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4$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2$ 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난인식, 재난태도에 대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 재난인식, 재난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인식에 따른 재난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0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78.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의 경우 약 90%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47.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타전공도 39.6%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위의 경우 대표자 36.5%, 중간관리자 26.8% 수준으로 현장실무자와 서비스제공인력에 비해 많았다. 평균 근무기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66개월(5년 6개월)이었으며, 현재 직장의 경우 43개월(3년 7개월)로 나타났다. 외부교육 참여횟수는 2회 이상 5회 미만이 51.9%로 절반 이상이 연평균 2~4회의 외부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105, Persons, %)

Category	Ran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ge	23 ~70	40	11,92
Welfare field service period	3~257month	66month	53,72
Current work period	2~180month	43month	33,57

Category	Range	Frequency	Percentage
Gender	Woman	82	78,8
	Man	22	21,2
Ages	20's	27	26,7
	30's	30	29,7
	40's	23	22,8
	50's	12	11,9
	Over 60	9	8,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	1,9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9	8,7
	University graduate	49	47,6
	Graduate school attending(graduate)	43	41,7
Major	Major in Social Welfare	48	47,5
	Other major	40	39,6
	Double major	13	12,9
Title	Representation	35	36,1
	Middle manager	26	26,8
	Field practitioner	21	21,6
	Service Providers	15	15,5
Social welfare field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ear	5	5,6
	1 year to 3 years	23	25,8
	3 year to 5 years	21	23,6
	5 year to 7 years	9	10,1
	7 year to 10 years	14	15,7
	More than 10 years	17	19,1
Current workplace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ear	16	17,0
	1 year to 3 years	35	37,2
	3 year to 5 years	24	25,5
	5 year to 7 years	8	8,5
	More than 7 years	11	11,7
Number of times Participating in external education	2 times or less	10	13,0
	More than 2 times Less than 5 times	40	51,9
	More than 5 times Less than 7 times	16	20,8
	More than 7 times Less than 10 times	6	7,8
	10 times or more	5	6,5

응답자의 소속기관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먼저 기관이 소속한 구의 경우 사하구 13.3%, 연제구 12.4%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설립기간은 2년 이상 5년 미만 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근직원 수는 5명

미만이 48.3%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서비스제공 인력은 5명 이상 10명 미만 32.2%, 20명 이상 2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수는 10명 이상 50명 미만이 47.3%로 절반수준이었다. 법인유형은 비

Table 3.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

(N=105, Persons, %)

Category	Range	Frequency	Percentage
Agency affiliation	Jung-gu	1	1.0
	Saha-gu	14	13.3
	Geumjung-gu	8	7.6
	Yeonje-gu	13	12.4
	Suyoung-gu	12	11.4
	Sasang-gu	7	6.7
	Seo-gu	3	2.9
	Dong-gu	2	1.9
	Youngdo-gu	1	1.0
	Busanjin-gu	2	1.9
	Dongrae-gu	6	5.7
	Nam-gu	7	6.7
	Buk-gu	8	7.6
	Haeundae-gu	6	5.7
Institution establishment period	2 years or less	8	9.6
	More than 2 years and less than 5 years	30	36.1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26	31.3
	More than 10 years and less than 15 years	4	4.8
	15 years or more	15	18.1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5 persons or less	43	48.3
	More than 5 persons and less than 10 persons	15	16.9
	More than 10 persons and less than 15 persons	8	9.0
	More than 15 persons and less than 20 persons	11	12.4
	20 persons or more	12	13.5
Number of service providers	5 persons or less	17	19.5
	More than 5 persons and less than 10 persons	28	32.2
	More than 10 persons and less than 15 persons	13	14.9
	More than 15 persons and less than 20 persons	5	5.7
	20 persons or more	24	27.6
Number of service users	10 persons or less	8	10.8
	More than 10 persons and less than 50 persons	35	47.3
	More than 50 persons and less than 100 persons	11	14.9
	More than 100 persons and less than 150 persons	4	5.4
	150 persons or more	16	21.6
Type of corporation	Social welfare corporation	21	25.0
	Religious corporation	1	1.2
	School corporation	13	15.5
	Ministry agency	1	1.2
	Other corporations	13	15.5
	Unincorporated	35	41.7
Type of service provided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business	89	85.6
	Household care visit support project	3	2.9
	Mother-child health care support project	6	5.8
	Etc	6	5.8

법인 41.7% 사회복지법인 2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공서비스 유형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85.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2. 재난인식, 재난태도

응답자의 재난인식과 재난태도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재난인식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0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교육필요여부 3.96점, 개인손해수준은 평균 3.87점, 지역피해수준 3.79점, 재난교과목개설필요여부 3.6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예방관심수준 3.47점, 재난발생가능성 2.82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재난태도의 경우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95점이었다. 먼저 역 문항을 살펴보면, 재난계획 소수를 위한 것 1.73점, 재난관리소관 1.92점, 재난계획인지불필요 2.31점, 재난발생가능성 희박 3.02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절한 재난대비훈련필요 4.29점, 재난관리 필요 4.23점, 재난계획구비필요 4.18점, 잠재적 위험 파악 및 처리 4.12점, 재난계획 정기적 갱신 4.05점, 재난훈련실

시 3.82점, 재난모의훈련실시 3.68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태도, 재난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태도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 전공, 직위, 현 직장 근무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F=3.805, p=.007)와 사회복지분야 근무기간(F=2.916, p=.018), 외부강의 참여횟수(F=3.092, p=.021)에 따른 재난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수집 자료 중 연속변수와 선행연구(Park, 2015)에서 재난인식 및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변수(연령, 총 경력, 응급실 경력)들을 위주로 주요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재난태도는 재난인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p<.01). 즉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Table 4. Disaster awareness, disaster attitude

(N=105, Score 5 points)

Category	Question	Average
Disaster awareness	Personal injury level	3.87(±1.04)
	Possibility of disaster	2.82(±0.89)
	Disaster Prevention Level of Interest	3.47(±0.97)
	Local damage level	3.79(±0.91)
	Disaster Education Needs	3.96(±0.80)
	Need to open disaster course	3.69(±0.82)
	Sum	3.60(±0.59)
Disaster attitude	No need for a disaster plan	2.31(±1.49)
	A disaster plan for a small group	1.73(±1.13)
	The possibility of disaster is rare	3.02(±1.09)
	Disaster management jurisdiction	1.92(±1.29)
	Appropriate Disaster Management Needs	4.23(±0.99)
	Identify and handle potential risks	4.12(±0.87)
	Need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4.29(±0.76)
	Disaster Plan Needed	4.18(±0.78)
	Regular renewal of disaster planning	4.05(±0.89)
	Conduct disaster simulation training	3.68(±0.92)
	Conduct disaster training	3.82(±0.86)
	Sum	3.95(±0.55)

Table 5. Disaster awareness, disaster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5, Score 5 points)

Category	Range	Disaster attitude		Disaster awareness	
		Question	T/F	Average	T/F
Gender	Woman	3.95(±0.58)	.144	3.61(±0.59)	-.156
	Man	3.97(±0.46)		3.58(±0.58)	
Ages	20's	4.19(±0.47)	3.805**	3.71(±0.50)	2.02
	30's	3.72(±0.47)		3.38(±0.49)	
	40's	4.11(±0.56)		3.72(±0.50)	
	50's	3.70(±0.81)		3.83(±0.64)	
	Over 60	4.09(±0.34)		3.58(±0.98)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4.25(±0.49)	.512	4.42(±0.35)	2.080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	4.08(±0.46)		3.76(±0.64)	
	University graduate	3.98(±0.51)		3.64(±0.50)	
	Graduate school attending(graduate)	3.90(±0.63)		3.49(±0.64)	
Major	Major in Social Welfare	3.98(±0.52)	.122	3.66(±0.46)	.892
	Other major	3.93(±0.58)		3.52(±0.68)	
	Double major	3.92(±0.63)		3.46(±0.66)	
Title	Representation	3.80(±0.62)	1.793	3.52(±0.68)	1.080
	Middle manager	3.99(±0.45)		3.76(±0.52)	
	Field practitioner	4.15(±0.54)		3.56(±0.49)	
	Service Providers	3.92(±0.52)		3.45(±0.66)	
Social welfare field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ear	3.96(±0.54)	2.916**	3.40(±0.48)	.697
	1 year to 3 years	4.17(±0.42)		3.64(±0.54)	
	3 year to 5 years	3.73(±0.62)		3.56(±0.67)	
	5 year to 7 years	4.38(±0.48)		3.88(±0.53)	
	7 year to 10 years	3.77(±0.64)		3.65(±0.52)	
	More than 10 years	3.80(±0.50)		3.45(±0.72)	
Current workplace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ear	4.02(±0.49)	1.964	3.49(±0.41)	.737
	1 year to 3 years	3.96(±0.54)		3.66(±0.53)	
	3 year to 5 years	3.74(±0.61)		3.63(±0.67)	
	5 year to 7 years	4.35(±0.33)		3.90(±0.44)	
	More than 7 years	3.91(±0.61)		3.61(±0.63)	
Number of times participating in external education	2 times or less	3.89(±0.53)	3.092*	3.32(±0.42)	1.752
	More than 2 times Less than 5 times	3.99(±0.57)		3.72(±0.55)	
	More than 5 times Less than 7 times	4.17(±0.54)		3.73(±0.58)	
	More than 7 times Less than 10 times	3.35(±0.27)		3.28(±0.33)	
	10 times or more	3.60(±0.51)		3.43(±1.18)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ey measurement tools

Category	Gender	Age	Major	Social welfare field employment period	Current workplace employment period	Number of times participating in external education	Disaster awareness	Disaster attitude
	a	b	c	d	e	f	g	h
a	1	-.030	-.028	.021	.022	-.109	-.016	.015
b		1	.129	.431**	.208*	.188	.037	-.059
c			1	-.032	.007	-.128	-.098	-.038
d				1	.460**	.100	-.077	-.108
e					1	-.021	.012	-.030
f						1	-.075	-.190
g							1	.398**
h								1

* p<.05 ** p<.01

Table 7. Predictors of attitude toward disaster

Category	Rang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p
		B	Standard error	beta		
Regression model 1 (R ² =.048)	(a constant)	4,454	.288		15.456	.000
	Gender	.026	.178	.020	.146	.885
	Age	-.001	.008	-.029	-.178	.859
	Participation in external education	-.046	.022	-.281	-2.114	.039
	Major	-.254	.163	-.219	-1.554	.126
	Welfare field service period	-.002	.002	-.145	-.863	.392
	Current job experience	-.002	.003	-.094	-.606	.547
Regression model 2 (R ² =.321)	(a constant)	2,602	.455		5.715	.000
	Gender	.118	.151	.091	.783	.437
	Age	-.007	.007	-.148	-1.069	.290
	Participation in external education	-.055	.019	-.335	-2.965	.005
	Major	-.132	.140	-.114	-.943	.350
	Welfare field service period	-.001	.002	-.077	-.542	.590
	Current job experience	-.003	.003	-.146	-1.106	.274
Recognition of Disaster	.559	.116	.529	4.811	.000	

5. 회귀분석결과

재난태도에 재난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들로부터 구성된 회귀모형1에서는 외부교육참여횟수($b=-.046$, $p=.039$)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1은 재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체 분산의 4.8%($R^2=.0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회귀모형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부교육참여횟수($b=-.055$,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재난인식($b=.559$,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재난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2는 재난태도의 전체 분산의 32.1%($R^2=.321$)를 설명하며 회귀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회귀분석의 오차의 자기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값이 2.021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VIF값도 1.05-1.82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난에 있어 사회복지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에 있어 사회복지분야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접근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재난인식과 재난태도, 그리고 일반적 특성과 재난인식에 따른 재난태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제도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인식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난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인 손해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피해에 대한 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재난에 대한 두려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 발생 시 겪게 될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만 그에 비해 내가 생활하는 지역에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평상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재난인식개선 교육이 요구된다. 재난태도에 대해서는 재난

에 대비한 대처 훈련 필요성과 재난을 대비하여 적절한 재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난대비 훈련 및 적절한 재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나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뉴얼이 현장에서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태도에서는 연령대와 사회복지분야 근무기간, 그리고 외부교육 참여 횟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가장 젊은 20대에서 재난태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경남 지진발생 시 국민안전처의 늦장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진회 알림’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그 후 9월 21일 국민안전처가 5분 만에 발송한 재난문자에 비해 지진 발생 1분 만에 이 SNS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진 대피요령을 공유하는 등 소식이 전해진 사례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결과이다.³⁾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젊은 층의 재난태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 근무기간의 경우 5년에서 7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집단의 재난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5년차는 보통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아 경력직 채용 시 가장 선호하는 연차⁴⁾로 꼽히기도 한다. 이렇듯 업무에 대한 파악과 전문성, 숙련도가 높은 집단에서 재난태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난에 있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Won(2012)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기후재난 사례연구를 통해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식격차가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들의 재난대응 역량’ 부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집단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데, 사회서비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5~7년차 종사자들의 높은 재난태도를 재난교육에 대한 욕구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재난인식과 재난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규명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이 외부교육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재난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교육이라 함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며 재난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 참가자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습득이라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들이 재난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전혀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외부교육 횟수 증가만으로는 재난태도에 역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방안 모색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인식이 재난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및 활동분야에서의 재난에 대한 이해와 판단 정도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에 대처하는 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증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은 대부분 대규모로 발생하며 공공영역의 대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3) [지금 SNS에선] 재난도 DIY시대. Kyunghyang Shinmun, 2016.09.25.

4) “5년차 경력자 상한가... 평가 비중은 업무 전문성과 숙련도”. Headline News, 2015.10.27.

의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경우 순환보직 제도 하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⁵⁾.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전문인력 즉,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신규채용 확대를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그러나 기존의 재난담당 인력 및 매뉴얼 등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임시방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력 채용 보다는 기존의 활용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재난취약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의 경우 주민들이 항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관련한 선행연구(Song, 2016)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은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다양한 지역사회 체계들이 연계·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된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존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화된 사회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재난대비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난취약자라 함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그 대상별 제공자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간한 ‘지체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등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는 매뉴얼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야말로 ‘재난취약자’이다. 지난 2017년 1월 6일, 한국장애인연맹 주최 ‘장애포괄적 재난안전 위기관리 시스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강

윤목 보좌관은 “당사자 뿐 아니라 반드시 동거가족, 활동보조인, 이웃, 구급대원 등 관계 공무원의 교육과 훈련도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⁶⁾. 이러한 매뉴얼 속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매뉴얼 제작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을 재난 대응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시간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매뉴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난태도’가 개인의 경험 또는 미디어와 같은 경로를 통해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은 현재로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재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을 위한 4차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 2항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필요성을, 제66조 5항에서는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조항 1호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관에 따른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에 맞추어진 재난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Shim(2016)의 연구처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

5) Kim, et. al.(2009)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의 경우, 실제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기술의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낮았으며, 승진이나 성과급과 같은 보상은 없이 위기 대응 결과에 대한 감사와 같은 불이익은 많아 기피 업무로 인식되어 순환보직 제도 하에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장애인 재난대책 마련, 끝 아닌 시작이다”. Ablenews, 2017.01.06.

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위한 교육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면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위한 지역별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대한 관리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재난은 지역과 대상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큰 위협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계협력의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최근 빈번히 확인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 비해 실질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Hyun(2016)의 경우 재난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보 공유 및 정보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으며, 같은 관점에서 민간 특히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연계된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This study was supported by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funded by Brain Korea 21plus.

References

- Choi, Jung Soon. 200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ourism Recognition of Low-Income Family in Urban Area on Tourism Attitude.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Fiske, S. T. and S. E. Taylor. 1991. *Social Cognition(2nd ed)*. NY: McGraw-Hill, Inc.
- French, E. D., M. L. Sole, A. Jennings-Sanders, N. Frisch, and S. Wing. 2005.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Disaster Nursing.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3(3): 80-85.
- Friedsam, H. J. 1960. Older Persons as Disaster Casualti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ur*. 1: 26-273.
- Fung, O. W. M., A. Y. Loke, and C. Y. Lai. 2008. Disaster Preparedness among Hong Kong Nurses. *Journal of Nursing*. 62(6): 698-703.
- Heurta, F. and R. Horton. 1978. Coping Behavior of Elderly Flood Victims. *The Gerontologist*. 18: 541-546.
- Hyeon, Min Jin. 2016.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of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Focused on the Disclosure and Sharing of Inform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 Kapucu, Naim and Hu Qian. 2014. Understanding Multiplexity of Collaborative Emergency Management Network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October: 1-19.
- Kim, Eun Sung, Ji Bum Jung, and Hyuk Guen Ahn. 2009. A Study of the Policy Paradigms for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KIPA Research Report*.
- Kim, Moon Geun. 2015. A Study on Safety Regulations Concern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Focused on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42(3): 135-160.
- Kim, Rae Ho. 2015.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ompetency for Public Employees in Local Government.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Soung Wan and Sung Min Roh. 2016. Basic Research for Preparation of a Disabled-Inclusive Publ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 1-22.
- Kim, Yoon Jung. 2005. The Study of the Disaster-recognition of Medical Personnel and 119 Rescuers in Daegu, Korea.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untz, S. W., P. Frable, K. Qureshi, and L. L. Strong. 2008. Association of Community Health Nursing Educators: Disaster Preparedness White Paper for Community/Public Health Nursing Educators. *Public Health Nursing*. 25(4): 362-369.
- Kwon, Hyo Soon, Sang Yong Kim, and Song Won Lee. 2013. Basic Research for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 Manual for Handicapped Persons.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Kwon, Sun Ae and O Bok Leem. 2015. A Study on the Value Conflicts of Social Welfare Profession in the Social Service

- Market.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48.
- Lee, Eun Hwa.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Individual Donation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Hye Won. 1999.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9: 266-289.
- Lee, Su Kyung. 2014.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Disaster Preparedness among Nurses in Emergency Departmen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 Lim, Se Young, Hyeon Ji Lee, Mi Young Choi, Jeong Hyeon Hwang, Mun Ui Kim, and Tae Young Moon. 2015. The Effect of Disaster Awareness and Satisfaction on Volunteer Activity Persistence in Volunteer Firefighters.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1(2): 191-202.
- Lutz, R. J. 1981. *The Tourist Business (3rd ed)*. Boston: CBI Publishing Company Inc.
- Milward, H. B., K. G. Provan, A. Fish, K. R. Isett, and K. Huang. 2010. Governance and Collaboration: An Evolutionary Study of Two Mental Health Network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9: 895-915.
- Min, Kyong Bae. 2015. A Wise Collective Intelligence. *The Kyunghyang Shinmun*. 1132.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Basic Plan(2015~2019)*.
- Noh, Ki Sung. 2011.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Social Service Policy: Focusing on Social Welfare Service. *KDI Policy Research Series*. 7.
- O'Toole, L. J. 1997.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 45-52.
- Park, Chung Gun. 2008. A Study on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of Korea.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 Park, Eun Ah. 1996. The Study on the Perceptual Difference of the Groups Related to Tourism Event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Park, Hye Young. 2015. Factors Affecting Emergency Nursing Core Performance Ability in Emergency Room Nurse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 Park, Ji Hwan, and Yoon Hee Kim. 2014.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for Effectiveness of Disaster and Safety Training and Exercise in Local Government.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2): 45-62.
- Park, Kyung Ok. 2008. The Effects of Handicap Cognition Improvement Program on the Attitudes of Ordinary Children to Handicapped Ones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Park, Sang Phil. 2005. *Introduction to NGO Studies*. Seoul: Arche Publishing House.
- Park, Su Ji. 2009. A Study of Social Servic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in Welfare State-Focusing on Social Service in German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 155-177.
- Park, Sung Woong.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Safety Education, Social Capital, and Citizen Education: Focusing on the Disaster Safety Education of the Korean Red Cross Society.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 Pattillo, M. M., and T. M. O'Day. 2009. Disaster Response: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Nursing Experience.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1(4): 378-381.
- Shim, Jin Ah. 2016. A Development of Draft Proposal for Disaster and Safety Teacher Education Program for Construction of Customized Disaster Preparedness Manual by Daycare Center.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Shin, Hyo Jin, and Ha Sung Kong. 2014.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Welfare Facility Type.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89-97.
- Song, Byung Kil. 2016. A Study on Policies of Creating a Safety Culture: Focusing on Results of Survey on Citizens' Safety Percep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 Song, Mi Soon. 1984. A Study on the Nurse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Factors Affecting Their Attitudes. *The Latest Medicine*. 27(7): 117-125.
- Sung, Ki Hwan, and Il Moon Choi. 2011. A Research on Building Protecting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in Large Scale Disaster A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7(1): 1-22.
- Won, Gil Yeon. 2012. Analysis on Risk Perception in the Climate Change Disaster: Focus Group Research to the Difference

- between the Experts Group and Laypeople Group.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Woo, Chung Hee, Jae Yong Yoo, and Ju Young Park. 2015. Experience,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11): 19-35.
- 片田敏幸, 及川康, 寒澤秀雄, 浅田純作. 1999. 洪水時における要介護高齢者の避難行動の現状と問題点. *土木計画学研究・講演集*. 22(1): 167-170.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민안전처. 2016.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서울: 국민안전처.
- 권순애, 이오복. 2015.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사회복지전문직 가치갈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48.
- 권효순, 김상용, 이송원. 201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뢰호. 20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근. 2015.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연구: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2(3): 135-160.
- 김승완, 노성민. 2016.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재활복지*. 20(1): 1-22.
- 김영석. 2005. 설득 커뮤니케이션. 파주: 나남출판.
- 김윤정. 2005. 일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구급대원의 재난에 대한 인지도 평가.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성, 정지범, 안혁근. 2009.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 노기성. 2011.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7.
- 민경배. 2015. [비상식의 사회] 각자도생을 뛰어넘은 지혜로운 집단지성. *주간경향*. 1132.
- 박경옥. 2008.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필. 2005. NGO학. 서울: 아르케.
- 박성용. 2016. 재난안전교육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교육의 연관성 연구: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지. 2009.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1: 155-177.
- 박은아. 1996. 관광이벤트 관련집단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환, 김윤희. 201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의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2): 45-62.
- 박충진. 2008. 한국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15. 응급실 간호사의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기환, 최일문. 2011.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1-22.
- 송미순. 1984. 간호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7(7): 117-125.
- 송병길. 2016.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시민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진, 공하성. 2014.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8(5): 89-97.
- 심진아. 2016. 어린이집별 맞춤형 재난대비 매뉴얼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교사교육 프로그램 시안개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희, 유재용, 박주영. 2015.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인식 및 재난준비도. *한국위기관리논집*. 11(11): 19-35.
- 원길연. 2012. 기후재난에 대한 위험인식 분석: 전문가와 지역주민 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2014.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의 재난대비에 대한 지식과 인식.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2011. 개인의 기부인식과 태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9: 266-289.
- 임상규. 2016. 재난대응활동계획 기반의 협력적 재난대응체계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2(4): 1-15.
- 임세영, 이현지, 최미영, 황정현, 김문의, 문태영. 2015.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만족이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1(2):

191-202.

최정순. 2000. 도시 저소득층의 관광인식이 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규석. 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현민진. 2016. 재난관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

증적 연구: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및 공유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Feb. 1, 2017 / Revised: Feb. 23, 2017 / Accepted: Mar. 22, 2017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의 재난인식이 재난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재난인식, 재난태도를 분석하여 향후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22일에서 12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10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기관의 특성 10문항, 재난인식에 관한 6문항, 재난태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연령대, 사회복지분야 근무기간,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재난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재난인식과 외부교육 참여횟수가 재난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각 정적,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재난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난인식, 재난태도, 사회서비스제공인력

-
- Profiles**
- Min Soo Kim** : 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lso the master's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is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ulnerable groups(jinjuminsu@hanmail.net).
- Soo Young Kim** : She is a second author. She received her M.A.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elderly poverty and disaster management(er7sy0@gmail.com).
- Byung Hyun Park** : He is a corresponding author. He received his Ph.D. from Pennsylvania University. He is a professo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Health Literacy and Social Policy(bhpark@pusan.ac.kr).
- Yun Jung Choi** : S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lso a doctoral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er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Disaster Vulnerable People(yunjaaa@hanmail.net).